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2호 [루게 제23234호] 주체99 (2010)년 10월 9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돌아보시고 갓 입사한 예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과 예술인들의 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주상성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주규창동지, 리태남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우동측동지, 김정작동지, 김창섭동지, 문경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국립연극극단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현대적으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좋은 문화정서생활 조건을 안겨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창조물이다.

수도의 한복판에 훌륭한 문화예술전당인 국립연극극장이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올라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신 뜻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치렬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드리였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극장에는 620여석의 관람석과 무대, 최신음향 및 조명설비들, 여러

습실들과 분장실들은 물론 보조청사와 편의봉사시설들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국립연극극장이 우리 인민의 미감과 건축학적요구에 맞게 건설되어 또 하나의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가 마련됨으로써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극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장식과 비품, 소리울림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군인건설자들이 대중적역동주의를 발휘하여 극장을 새 세기의 미감에 맞게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국립연

극극장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문화예술전당으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천년을 적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 만년대계의 극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극장을 4개월 남짓한 사이에 일떠세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성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적고전미와 현대미가 결합되고 우아함과 웅장함, 정교함이 잘 조화된 국립연극극장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문화전당이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

을 금지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숲을 이루며 일떠서고있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자랑찬 모습을 펼쳐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미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특색있는 건축형식을 적극 탐구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향유물인 국립연극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갓 입사한 예술인들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새 로 건 설 된 국 립 연 극 극 장 을 돌 아 보 시 고

갓 입 사 한 예 술 인 들 의 가 정 을 방 문 하 시 었 다



1 면 에 서 계 속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쌍벽을 이루며 나란히 일떠선 원형고층살림집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위대한 선군시대를 선도해가는 사상전선의 기수들이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이다.

대동강기슭의 웅장 화려한 건축물들과 잘 어울리게 건설된 예술인살림집은 내부구조가 특색있게 되었을뿐 아니라 주택주변이 훌륭히 꾸려져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게 되어있다.

결사관철의 투사들이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백세대에 달하는 고층살림집건설공사를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살림집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난방조건과 상하수도설비로부터 살림집의 내부구조와 가구의 형태, 장판지색갈에 이르는 세부까지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부엌과 세면장, 살림방들이 구색에

맞게 잘 꾸러진 살림집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예술창조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에게 보다 좋은 살림집들을 안겨주게 된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인살림집은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그대로 구현된 최상급의 현대적인 살림집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살림집들이야말로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인살림집은 설계

도 잘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하시면서 리상적인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방금 새집에 이사온 국립연극단의 배우들인 백승란, 최금향, 김철진동무들과 단장 리지영동무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집들이를 축하하시고 식구는 멋이요 남편과 안해, 자녀들은 어느 직장,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수도물은 잘 나오는가, 방에 햇빛은 잘 드는가를 물어 물으시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신 후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에 들리시여 찬장, 옷장, 이불장들을 손수 열어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급주택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것이 꿈만 같다고,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훌륭한 집에서 사니 더 바랄것이 없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방문기념으로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돌아보시고 갓 입사한 예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었다



2 번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예술인들은 대중을 당면적 관철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전선의 미더운 초병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었다.

백승란, 최금향, 김철진, 리지영동무들은 세간나간 자식의 집을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살림살이를 다심하게 보살피며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전체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당의 문에 전사의 본분을 다해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거세찬 대고조의 불길속에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그려오던 세기적인 리상과 포부가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로동당시대의 이 격동적인 사변은 이 땅 위에 거연히 일떠서게 될 주체의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바야흐로 눈앞에 펼쳐주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낱말이 변모되는 수도의 거리들을 돌아보시면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수도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구현된 도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거리형성과 도로건설, 각종 건축물들의 배치와 형식을 특색있고 전망성있게 하며 고도의 인민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기지를 잘 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도시 특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시에 녹지를 더 많이 조성하고 모든 주택지구들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함으로써 수도 평양이 공원속의 도시, 공해를 모르는 도시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빛내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택건설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면하여 평양시에 만수대거리에 일떠선 살림집과 새로 건설된 예술인주택과 같은 현대적인 10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수도건설자들이 전후 세인을 경탄시킨 영웅건설자들

과 15년동안에 수많은 현대적인 거리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평양 번영기를 열어놓은 개척자들처럼 새 세기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력사와 전통의 계승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다 시금 만천하에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군인건설자들과 예술인들을 비롯한 평양시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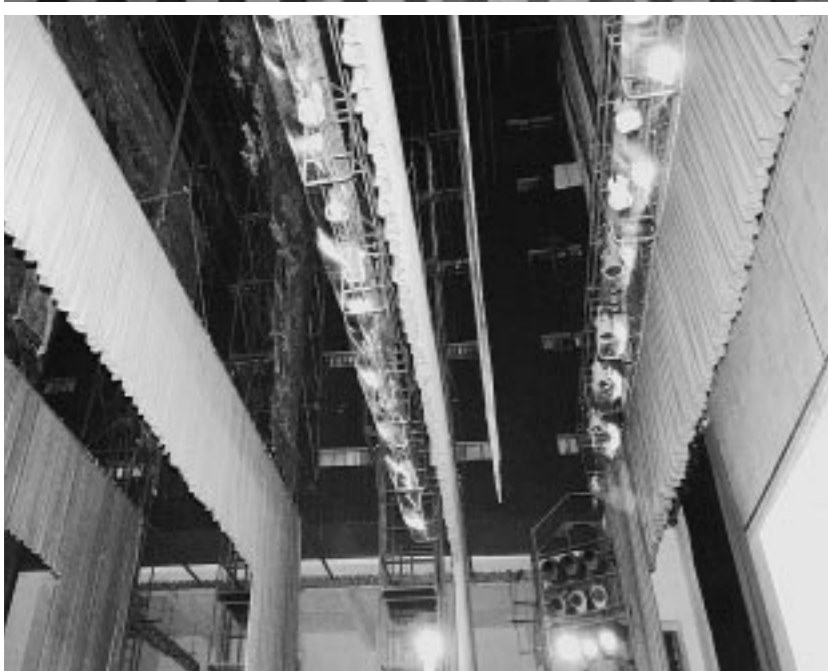
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는데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새 로 건 설 된 국 립 연 극 극 장 을 돌 아 보 시 고 갓 입 사 한 예 술 인 들 의 가 정 을 방 문 하 시 었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새 로 건 설 된 국 립 연 극 극 장 을 돌 아 보 시 고

갓 입 사 한 예 술 인 들 의 가 정 을 방 문 하 시 었 다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축포야회 진행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축포야회가 8일 저녁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혁명의 수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사적대경사에 이어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게 되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축포야회장들이 당창건기념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바라보이는 대동강변과 만경대지구를 비롯한 수도의 곳곳은 10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불꽃전경을 보기 위해 모여온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개척하고 이끄는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의 만민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으로 나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강성번영의 세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이 어려있었다.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들이 관람석에 나왔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 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해방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영웅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관람석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세일본조선인민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성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주조 여러 나라의 교대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야회관람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격정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축포야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영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 축포야회는 우리 당의 장구한 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영광의 축전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승리의 대화록이다.

당창건기념탑이 거연히 솟아있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밤하늘에 장쾌하게 터져오를 축포는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역세계를 걸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로 된다.

오늘의 축포야회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하게 개발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축포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천갈매만갈매로 황룡경을 펼칠 축포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명마루에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과 불타는 맹세의 불보라, 장엄한 피성으로 펼쳐진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찬란하며 우리는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포야회의 시작이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 《당의 기치따라》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당창건기념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상공으로 축포가 번이 터져오르며 수도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수놓았다.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세계정치사에 전후후무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고 김일성민족대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천만군민이 삼가 드리는 최대의 영광을 담아 불보라가 아름다운 일 만경을 상공에 펼쳐졌다.

《당을 노래하라》,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우리 당이 고마워》, 《당은 어머니모습》,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등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무수한 불꽃들이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성하며 기세차게 뿜어오르는 광경을 경탄속에 바라보며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장장 65년의 투쟁행로를 세기적변혁의 영웅사시사로 आरो세겨온 우리 당의 자랑스런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의 최전성기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조국정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다계단으로 번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에 뜻깊이 들어선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선물속에 타래쳐오르는 불꽃들이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세계적경지에 오른 우리 축포의 조형예술화수준을 과시하듯 드넓은 상공에 연속 피어오르는 불꽃구름이 환한 광경을 펼쳐며 야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쾌하게 터져오른 10월의 축포는 천만년 무궁도록 부강번영할 김일성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기약하는 영광의 불보라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태양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와 권위를 세세상에 떨치시었으며 선군의 기치 높이 강성번영

의 최전성기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조국정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다계단으로 번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에 뜻깊이 들어선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선물속에 타래쳐오르는 불꽃들이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세계적경지에 오른 우리 축포의 조형예술화수준을 과시하듯 드넓은 상공에 연속 피어오르는 불꽃구름이 환한 광경을 펼쳐며 야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쾌하게 터져오른 10월의 축포는 천만년 무궁도록 부강번영할 김일성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기약하는 영광의 불보라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태양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와 권위를 세세상에 떨치시었으며 선군의 기치 높이 강성번영

의 최전성기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조국정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다계단으로 번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에 뜻깊이 들어선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선물속에 타래쳐오르는 불꽃들이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세계적경지에 오른 우리 축포의 조형예술화수준을 과시하듯 드넓은 상공에 연속 피어오르는 불꽃구름이 환한 광경을 펼쳐며 야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쾌하게 터져오른 10월의 축포는 천만년 무궁도록 부강번영할 김일성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기약하는 영광의 불보라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태양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와 권위를 세세상에 떨치시었으며 선군의 기치 높이 강성번영



관람자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강성번영의 세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이 어려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며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민족당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각각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국연합통신TV보도회사 집행국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영국연합통신TV보도회사 집행국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만경대 방문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만경대예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만경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만경대예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만경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만경대예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만경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개신문, 4. 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 평양의 무도회장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격과 환희속에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있었다.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어머니수령님의 넉넉한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경축의 춤바다를 펼쳤다.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10월입니다》의 노래

총합 공연 진행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축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총합 공연이 8일에 진행되었다.

서장 《어머니당에 영광드려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대중창 《대원수님 장군님은 우리 당이요》, 세쌍둥이 노래 《누구도 대신할 걸 아니시래요》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관객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찬경하고 불패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우리 당을 승리하는 한길로 이끄시며 선군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남독창과 합창 《꽃보라로 날려요》, 북과 장고제주 《사랑의 꽃수레를 싣네》, 무용이 야기 《은 나라 대경사 끝없이 꽃피어나요》, 관현악 《노래속에 웃음속에 모시고있어요》를 비롯한 종목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도착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장봉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도 리사장을 맞이하였다.

한편 이날 마르셀로 하비에를 단장으로 하는 베루주제사상연구구대표단, 아베르 뽀네투스기를 단장으로 하는 뽀스까주제사상연구구대표단이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중국 항일혁명렬사,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도착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가족이 8일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린당 경제일보사 신 문발전센터 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베루주제사상연구 대표단, 뽀스까주제사상연구 조직대표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가족

일심단결된 태양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



일심단결된 태양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

